

마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민족이다

성경말씀: 뵤전2:9

요즘 우리는 내면을 살피는 시간,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울림이 있는 존재, 사명을 가지고 선택받은 존재, 왕가의 제사장,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중보 역할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민족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 살던 시절에 가졌던 인생관 역사관 세상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더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고백으로 인해 인생관 역사관, 세상관이 바뀐 사람
세상에 만연한 변영주의 신학과 교회들: 변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교회일수록 신자들의 삶은 더 엉망진창이다.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식과 사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은 그럴 필요도 못 느낀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어느 면에서 구원받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온전하지 않은 사상은 혼란한 생각을 가져오고 이율배반적인 실천을 가져온다.

신자의 삶은 신앙의 원리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과 복음의 계시,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불가능
신자의 삶: 신앙의 열정뿐만 아니라 지성의 인식 필요(혹은 신적 인식), 즉 잘 판단하는 사고 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과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당시 로마 시대: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문화, 너그러운 포용 정책 그러면서 황제 숭배 고취
황제 숭배는 종교라기보다는 로마를 정신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정치적 방편

즉 너희 종교 + 황제 숭배를 하라

수용한 사람들 박해를 받지 않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 황제 숭배 거절, 엄청난 박해
이유: 그리스도만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성도의 정체: 거룩한 민족(뵤전2:9)

거룩한 민족: 거룩하다, 세상과 분리되었다.

당시 로마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다. 유대인들도 하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으로는 그런 민족에 속하지만 완전히 딴 사람, 딴 민족

거룩함의 의미

1. 거룩함은 구별됨을 뜻한다.

식당의 예약석, 아무리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려도 그 자리는 구분되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거룩함, 하나님을 위해 구분됨

그리스도인의 신앙: 우리는 배타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예약된 사람들, 구분된 사람들

주일, 헌금, 예배 시간 등 모두 구별

많은 사람들의 문제: 거룩함을 자신 안에서 찾아보려 함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한 성도가 된다고 생각함,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핵심을 벗어남
그리스도인 자체가 이미 거룩히 구분된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

문제: 거룩한 성도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이유: 이미 거룩하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 제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싶었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을 위해서만 구분된 존재들이 다른 것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 문제

이것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의가 발동된다. 그것은 의로운 심판으로(히12장의 징계)

2.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한다.

성경의 하나님 거룩한 분,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밭에서 신을 벗으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수5:15).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고전:17).

(1) 창조 세상과 분리된 분, 비교 대상이 아니다. 위대함과 영광 면에서

(2) 도적적인 완전성: 영원성, 불변성, 완전성

인간과 하나님: 유한과 무한

벧전1:15-16

거룩함의 인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식: 홀로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망에서 배워야 한다.

실제적인 예: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에 대해 별로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인생의 고통,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함

이를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사6:5)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를 아는 것은 짝을 이룬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 위대함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예배, 생활 속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가?

신자의 존재의 울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결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울 때 나오는 울림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될 때 존재의 울림

그러므로 성도의 존재의 울림은 세상의 성공이나 부가 아니다.

인간이 마땅히 어떠한가? 하는가?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반드시 존재의 울림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많은 종교 서적, 성경 읽기 경건 생활을 해도 존재의 울림이 없을 수 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인의 착각: 나는 사명을 받았다. 무언가를 해야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사명이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

존재의 울림을 내는 것

그 결과: 변화된 인생관관 세계관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사는 것 중요

이를 위해 체계적인 사상 정립 필요(조직 신학), 거룩한 질서 필요

“무엇을 하며 살든지 확고한 신념과 사상 속에서 자기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입증하라.”

그것이 존재의 울림을 들려주는 방법이다.

우리 주변의 어떤 신자들: 부 명예 등 없다.

그럼에도 선한 영향력과 감화를 미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있다. 넘치는 화평, 하나님 한 분 만으로 기뻐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민족의 의미

거룩한 민족: 민족은 거룩함의 소명이 공동체적임을 보여 준다.

거룩함은 개개인의 정체성인 동시에 신자들의 영적 연합의 특징이어야 한다. 교회의 특징

교회의 영적 상태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으로 판단 불가능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룩함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랑과 거룩함은 엔진과 레일에 비유됨, 레일 위에서 일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

오히려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를 위해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행4:31; 12:24 등).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말의 의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도 거룩한 질서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런데 현시대 교회에서는 거룩함의 회복이 관심사가 아니다.

조그만 움직임: 세상 사람들의 요구: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내부: 우리가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함은 집단을 개선하는 방식이나 운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연 대한민국의 교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여 주고 있습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며 고민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한다.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교회의 사명은 신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야 한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에 대한 책만 읽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 강의만 듣고, 열렬해지라고 하면 뜨거운 간증만 듣고.. 이런 식으로가 아니다. 이것은 허울뿐인 대리 만족이다.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가장 시급하다. 매일 기도하며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 복음의 진리에 지적으로 친숙해져야 하고 동시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한때 충만했던 체험, 지금 이 시간 은혜 아래 거하지 않으면 무의미, 존재의 울림 불가능, 사탄, 세상, 육신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신앙의 배도 현상은 이런 저런 죄를 짓는 것 이상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변하는 것, 심하게 되면 구원 전 자기중심의 삶으로 돌아간다.

거룩한 민족으로 살려면 최소한 4가지가 필요하다.

1. 하나님의 말씀의 찬란한 빛(시119:105). 매일 주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한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시119:27)
2. 자기 성찰(고전1:12), 정교하게 자기를 살피는 것, 찬란한 빛으로 먼저 나를 비추어야 한다. 철저한 자기 성찰(빌2:4)
3. 마음을 쏟는 기도(눅21:36), 자기를 보고 거기서 멈추면 소용없다. 순종해야 한다. 시62:8, 나쁜 것들에 대한 애통, 좋은 것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 이를 위해 기도 필요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는 정신의 변화, 마음의 틀의 변화(시138:3) 마음을 쏟는 기도는 피의 펌프질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있던 악과 죄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만든다.
4. 의로운 삶을 살려는 용기(요16:33), 용기가 필요하다. 희생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환상이다. 신상 생활이 쉽다고 가르치면 거짓말 신앙생활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다. 용기와 결단 필요, 죽을 각오(딤후3:12) 이런 용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꽂 차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것

공병호 박사: 제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거대한 악의 세력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일을 시작하는 새벽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건은 선과 악의 문제이고, 진실과 거짓의 대결이며, 번영과 몰락의 대결이고,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이란 점을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길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은혜 없이 메마른 삶을 사는 것은 고역이다. 위험한 일이다.

우리의 신안고백과 삶이 일치하도록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말로는 복음 선포, 각종 규례 준수, 그러나 내면에는 기쁨이 없다, 거룩한 민족의 삶이 아니다.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존재: 마땅히 그런 올림을 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속에서 자기 성찰, 기도하며 희생을 무릅쓴 용기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왜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기 / 때문에.